

# “회사보다 나라 생각한 분”...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

### 효성 본사에서 임직원들 배웅...전경련회관 등 거쳐 경기도 선영에 안장 아들 조현준 “남기신 가르침 깊이 새겨 사회에 보탬되는 재목 되겠다”

국내 섬유산업에 한 획을 그은 ‘재계의 거목’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일 엄수됐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조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됐던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마친 뒤, 고인이 1966년부터 몸담은 효성그룹의 마포구 본사로 이동했다.

손주들이 영정과 위패, 고인이 생전 받은 각종 훈장 등을 들고 앞장선 가운데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조현준 효성 회장·조현상 효성 부회장 등이 침통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고인의 관이 운구차에 실리고, 발인 예배를 집전한 이원재 남산교회 목사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축복하는기도를 하자 부인 송 여사는 관에 손을 얹고 한동안 오열하기도 했다.

장례식장을 출발한 운구차는 오전 7시 45분경 효성 본사에 도착했다. 정문 앞에 도열한 일부 임원들이 그룹을 세계적 섬유·화학기업으로 이끈 고인의 마지막을 맞이했다.

이후 오전 8시부터 지하 강당에서 영결식이 개최됐다. 영결식에는 유족과 명예장례위원장인 이흥구 전 국무총리, 장례위원장인 이상은 효성 부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과 효성 임직원 등 300명이 참석했다.

상주인 조현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평생 효성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

을 바치신 분이였다. 자신보다는 회사를 우선하고, 회사에 앞서 나라를 생각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효성은 아버지의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력, 그리고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세계 1등에 대한 무서울 만큼 강한 집념의 결정체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효성을 새벽을 밝히며 빛나는 새벽 같은 회사로 키우셨다”고 덧붙였다.

또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 사회에 보탬이 되는 큰 재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효성을 더욱 단단하고 튼튼한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상은 부회장은 “회장님의 식견과 통찰력을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큰 깨달음을 얻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로 세밀한 부분까지 예리하게 살피시던 모습, 회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킨 리더십, 위기를 헤쳐 나가시던 과감함까지 여러 면에서 존경스러운 분이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육을 먹더라도 우리 기업, 국가 경제를 위해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던 강직한 모습이 그림다. 오늘 함께한 모든 효성 가족들은 한마음 한 뜻으로 회장님을 잃은 커다란 슬픔을 이겨내겠다”며 “회장님께서 남기신 업적을 기리고 전하며, 그토록 사랑하셨던 효성과 대한민국의 힘찬 성장을 반드시 일구어내겠다”고 말했다.

영결식 후 운구차는 임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2일 서울 효성그룹의 마포구 본사에서 열린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에서 효성 임직원들이 묵념하고 있다. <효성 제공>

본사를 떠났다.

이후 조 명예회장이 생전 회장과 부회장 등을 맡아 오던 기간 몸담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현 한국경제인협회)의 여의도 회관과 서초구 효성 반포빌딩을 거친 뒤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 후 경기도에 있는 효성(家) 선영으로 이동했다.

1935년 경남 함안에서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흥제 회장과 허정숙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 재학 시절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히비야 고교를 거쳐 와세다 대학교 이공학부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준비하던 중, 1966년 부친의 부름을 받고 경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조 명예회장은 평소 기술 중시 경영을 펼치며, 기술에 대한 집념으로 국내 민간기업 최초 기술연구소 설립했으며, 신소재는 물론 신합성·석유화학·중전기 등 산업 각 방면에서 신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이 같은 ‘기술 중

## “기술한국” 위상 높은 경영인... ‘국민행복’ 먼저 생각한 진정한 경제인

### 류진 한경협 회장 추도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을 “‘기술한국’의 위상을 높인 경영인”이며 “‘국민 모두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경제인”이라고 추도했다.

“갑작스레 들려온 황망한 부음이 온 세상이 얼어붙는 듯 가슴 에이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셨던 재계의 큰 어른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허전함을 이루 표현할 길 없습니다.”

류진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계의 큰 별, 조석래 회장님을 기리며”라는 제목의 추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 2007~2010년까지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이끌었던 고인에 대해 류 회장은 더 없는 추모와 그리움을 전했다.

류 회장은 “시대를 앞서가신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로서 기업은 기술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념

으로 원천기술 개발에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다”며 “스판덱스 등 첨단 섬유 원천기술 확보와 미래 산업의 쌀이라는 탄소섬유의 독자개발을 통해 기술한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IMF 외환위기를 맞아 모두가 비용 절감에 매달리던 시절에 조 회장은 ‘투자가 곧 경쟁력’이라는 말을 했다. 이러한 독심 경영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신소재 산업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다”며 “나라가 살아야 기업 또한 살 수 있다는 일념으로 살아오신 분’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비록 회장은 떠나셨지만, 그동안 뿌리신 미래의 씨앗은 한국경제의 변명과 발전이라는 거목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무엇보다 고인을 국민을 사랑한 기업인으로 기억했다.

류 회장은 “고인이 전경련 회장으로 재임하던 때에 후배들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난다”며 “국민의 일 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 경제인들이 가야 할 길이다”고 전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며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잡 세어링’을 맨 먼저 주장하셨다”며 “모두가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회장님의 호소에 많은 기업이 동참했다”고 회고했다.

끝으로 “그동안 뿌리신 미래의 씨앗은 한국경제의 변명과 발전이라는 거목으로 자라날 것입니다”라며 “한평생 국민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오신 회장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우리 경제인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국가와 국민 위해 사업 번창시켜라”

### 故 조석래 명예회장 유언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임종 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업을 번창시켜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효성그룹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임종에 앞서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 가족들에게 이 같은 말을 남겼다.

자신에 이어 효성그룹을 이끌게 될 자녀들에게 기업에 성장시키고, 한국 산업과 경제에 큰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인의 유언은 초대 회장이자 선친인 고(故) 조흥제 회장이 효성을 창업하면서 강조한 창업 이념과도 일치한다. “산업 활동을 통해 국가에 봉사한다”는 효성의 창업이념은 고인이 생전 임직원들에게 강조했던 문구이기도 하다.

고인은 지난 1988년 신입사원연수 특강에서

“우리 모두의 일터인 효성은 ‘산업을 일으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산업입국(産業立國)’의 정신으로 창업됐다”며 “산업입국의 정신이란 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정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효성의 기업들은 한 번 쓰고 없어지는 소비재 산업보다는 생산재 산업이나 다른 산업의 원료, 즉 중간소비재산업에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그 바탕에는 우리의 창업이념인 산업활동을 통해 국가에 봉사한다는 투철한 정신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고인의 전경련 회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9년 1월 신년사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은 국민의 믿음직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시: 2024. 3. 13(수)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4. 3. 6(수)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종합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청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청(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 2024 고소득 추천 목록

<b>포포나무</b>	제릭스 빅걸	선물라워×셀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선별된 최고 크기의 포포, 최대 과중 800g
	리만스 달라이트	프로리픽×셀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육중된 품종, 달콤한 향에 뛰어난 품질을 자랑
	마리아스 조이	최대과중 631~704g, 년중 수확량 우수 유명 과수 학자가 지칭한 최고 맛있는 포포
<b>사과</b>	신품종부사 후지사과	인따기와 반사필름을 깔지 않아도 동서남북 색상이 잘나고 저장성이 우수하며 신맛은 적고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b>감</b>	감풍, 원추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수퍼 단감
	태추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슈퍼대봉	대봉중에 맛이 뛰어난 식재를 많이 합니다.
<b>연나무</b>	민연나무 가지없는 연나무	가지 없는 민연나무 가지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b>두릅</b>	민두릅 참두릅	가지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풍부하게 가을까지 수확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4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 땅 상담해 드립니다.**

**갑을농원**  
문의전화 010-3121-7676  
문의전화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25  
농협 703-02-497271(예금주 정준화)

### 펜션 급매매

####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가능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 분할합병공고

2024년 4월 2일 각자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더전망(이하 '갑')의 소방시설공사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가온이엔지(이하 '을')와 분할합병(갑)의 소방시설공사사업 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주제외계시 등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3일

**갑 주식회사 더전망**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봉단지 50, 204동 208호 (대저2동, 부산터미널역)  
대표이사 한용석

**을 주식회사 가온이엔지**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38, 605호 (빛가람동, 아주드림타워2)  
사내이사 최재성

72년을 밝힌 호남인문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북구	• 동광 266-1920	• 문동 266-1960
	• 북광 525-3761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지 266-7801
	• 용봉 433-1503	• 동성 543-1503

• 동구

• 남광 673-6836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명 222-9054
• 중정 222-8171	

•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북부 673-6836	• 송파 675-6805
• 진동 671-7276	

•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 369-1625	• 윤천 376-7153
• 치평 376-6511	• 윤평 603-0311
• 화정 369-1625	

• 광산구

• 온남 952-1687	• 월곡 959-1920
• 함단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	